

광주시 ‘안전사고 ZERO 도시’ 추진 성과

올 안전문화 대상·재난대응 훈련 등 우수기관 선정

싱크홀·환풍구 추락·펜션화재 등 사례 분석·예방

광주시가 ‘안전사고 ZERO 도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시민 안전 정책이 각종 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등 전국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6기 들어 각종 안전시책을 추진한 결과,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선정(특별교부세 4억8000만원), UN ISDR(국제연합 재해경감전략기구) 가입 인증, 을지연습 최우수기관(대통령 표창) 및 2014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1억5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수상 등의 영예를 안았다.

시민 안전을 민선 6기 최우선 시책으로 정한 광주시는 올해 교량과 육교, 공동주택, 도로, 철도, 건축물 등 5000여개소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시는 특히 타지역에서 싱크홀을 비롯한 지하 환풍구 추락, 펜션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모든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 했으며,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 후 개최하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또 각종 안전사고 관련 행사를 기

존 행정기관 주도 방식에서 시민참여 중심으로 전환해 이를 배우려는 타 지역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을지연습’ 기간(8월18~21) 동안 전국 최초로 시민대상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10월21~23) 내내 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형 훈련을 목표로 지하철 비상탈출 훈련, 터널 내 대형화재 대응훈련,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대응 불시훈련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계절별로 유해화학물질 유출(8월), 지하철 화재(10월), 대설(11월) 대비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시기별 실천 감각을 높인데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인접한 영광 한빛원전의 방사능 사고를 예방·대비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한빛원전 사고시 인접한 광주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전 대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한빛원전 사고 대응 방재시스템 구축’을 민선 6기 공약과제 및 광주·전남 상생협력 과제로 선정하는 등 방사능 사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는 방사능 누출 대응 행동매뉴얼 마련, 22개 기관이 참여한 사고 대응 관계기관 보고회 개최, 원전 운영상황 실시간 문자정보(SNS) 공유체계도 가동중이다.

장학기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다가오는 2015년을 안전사고 Zero화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르호봇 광주비즈니스센터 내부 전경.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서구 치평동에 광주센터 개원

세무 등 창업 관련 업무 지원

개원 기념 사업제안서 공모도

광주 상무지구에 창업 희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문을 연다.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2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타워(5층)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는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을 비롯해 창업에 필수적인 세무회계, 법무, 실용신안 특허 및 상표등록, 출원 등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이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도 부족한 사업자금과 창업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 희망자와 대학생 및 젊은층의 창업을 돕기 위한 시설이다.

르호봇은 수도권에 29개, 부산 1개, 대전 1개 등 31개 센터가 운영중이며 광주 센터는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시설로서 전국 32번째이다.

르호봇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수혜하는 사업자와 창업희망자들에게 제반 행정업무를 지원함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창업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국의 업무 네트워크를 통합 지원·공유해 창업 희망자들이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르호봇 광주비즈니스 센터는 입주

사 간 또는 외부 기업과의 거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1인 기업에서부터 4인의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특히 르호봇은 입주자들이 지방에서도 수도권의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해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전문 인큐베이터 기업이다.

지금까지 지방의 창업희망자들은 전문화된 수도권의 창업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서울로 가져가 창업의 도전자세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르호봇 광주비즈니스 센터(대표 이원구)는 지방의 소외된 창업 희망자들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방대학 창업관련학과 학생과 직장인 그리고 창업에 꿈을 갖고 있는 지역 인재들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원 기념으로 진행되는 ‘르호봇 사업제안서 공모전’은 2개의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을 선정해 멘토링 지원에서부터 6개월간 사무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세부 사항 확인 및 신청은 르호봇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홈페이지(<http://www.ibusines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무역사절단 8개기업

1060만불 수출계약 대박

러시아·인도네시아 등과

광주시는 “올해 무역사절단에 참가한 8개 중소기업이 최근 13건의 계약을 체결, 1060만달러의 물량을 수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러시아-동유럽, 중남미 등 5개 지역에 47개 업체를 파견, 58건 5664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 물량은 이 중 13건이 수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노보인터내셔널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현에서 수출협약한 업체와 지난 12월 1000만달러 규모의 인쇄용 잉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주문을 확보했다.

㈜오양물산은 32만달러 규모의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드릴 머신과 수직선반을 제작하는 ㈜인성중합상사는 러시아에 13만달러 규모의 자사제품을 수출하기로 했다.

이륜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메가파워㈜는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최근 10만달러 규모의 배터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해외시장개척단이 잇따라 수출계약 실적을 올림에 따라 대규모 수출계약이 체결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 3월 미국 LA지역을 시작으로 4월 중국, 6월 북미지역, 10월 중동, 11월 아시아 대양주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U대회 성공 개최 ‘파이팅’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홍보부 직원들이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U대회 성공 개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 디지털 지형도 제작 완료...내년 1월 공개

등고선 이용 땅·하천 형태 표현

광주 도심 땅과 하천의 형태 등이 그려진 지형도가 디지털 형태로 제작돼 시민에게 제공된다.

광주시는 21일 “관내 행정구역에 대상으로 매년 변화하는 지형을 디지털화하는 ‘2014년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치지형도는 등고선을 이용해 땅의 기복, 형태, 수계의 배열 등의 지형을 정확하

고 상세하게 나타낸 지도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도면을 말한다.

광주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공동 진행한 이번 사업은 올 4~11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양산지구, 용봉지구, 백운동 일원 등 43㎢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수치지형도는 항공사진을 이용해 도안을 작성하고 60여종의 시설물에 대한 지리조사를 거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 제작됐다.

수치지형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지리조사 자료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의 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송희오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제작된 수치지형도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면서 “시민과 유관기관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무료배송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강황의 효능

1. 치매예방
2. 당뇨 비만 등 성인병치료 예방
3. 관절염 치료 및 예방
4. 다이어트 효과
5. 항암효과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암빌딩 603호 네이처코미